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조승열/편집인 : 서창옥/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가입 안내

본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02년 12월 10일 현재 133 단체 (JKMS, 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02, 의과대학 학술지 15, 기타 학술지 15)이며, 개인회원이 17명이다. 특별회원

은 아카데미아, 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이며 단체회원 가입을 원하는 학술지는 대한의학잡지편집인협회 사무국 (Tel. 798-3807, Fax. 794-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KoreaMed LinkOut 서비스 실시중

LinkOut 서비스란 KoreaMed에서 검색된 논문의 원문 보기 기능을 말한다. KoreaMed에서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한 후, LinkOut icon을 click하면 학회 website의 학술지 원문으로 직접 연결된다.

2002년 12월 현재 9종 (J Korean Med Sci, Yonsei Med J, Korean J Radiol, 대한방사선의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대한병리학학회지, Exp Mol Med)의 KoreaMed 등재 학술지가

KoreaMed에서 학회 website의 학술지 원문으로 LinkOut 되고 있다.

LinkOut에 관한 자료는 www.kamje.or.kr → KoreaMed → "KoreaMed Journal LinkOut Policy", "KoreaMed Journal LinkOut URL Rule 만들기(PDF, HTML)" 에 올려져 있다. LinkOut참여를 희망하는 학술지는 본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Tel. 794-2474 내선 335)



제1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결과

제1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를 2002년 9월 25일 (수) 오후 5시부터 서울대병원 내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시행하였다. 9종의 학술지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소화관운동학회지, 순천향의대지, 응급의학회지, 의사학회지, 이식학

회지, 체질인류학회지, 치과보철학회지, 한국학교교육학회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와 심사평은 아래와 같다. 평점 2.5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6종의 학술지는 KoreaMed에 자동 등재되었다.



제1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 심사평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레터사이즈의 크기로 표지디자인이 산뜻하고 보기에 좋으나 영문제호가 눈에 띄지 않는다. 투고규정이 비교적 충실하여 논문작성에서 비교적 혼동이 적다. 인쇄에서 탈자나 오자가 없고 각 논문의 체제도 잘 갖추고 있는데 몇 개 논문이 임의로 '고찰' 보다 '총괄 및 고안' 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인쇄한 것이 흠이었다. 학문의 특성상 영상자료가 많이 인쇄되는데 몇 개의 사진이 약간 흐리거나 정보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영상자료의 처리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학술지로 큰 손색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내과 영역에서 분화가 아주 많이 된 전문영역의 학술지이다. 투고규정이 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상 학문영역, 간기, 투고자격, 저자소속의 표기방법, 각주 표기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투고규정과 달리 표를 국영문으로 혼용하여 작성한 논문, 사진에 번호표기를 하지 않고 설명한 논문이 있고, 제목과 도표에 오자, 영문

대문자 표기의 오류 등이 있었다. 표에 세로줄을 삽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학술지는 투고규정을 조금 보완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저자들에게 요구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순천향의대논문집

투고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도 부족하고 편집실무자도 관심을 갖고 학술지의 체제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학술지였다. 여러 학문영역의 논문을 다루는 학술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각 과목 별로 논문의 체제가 상이하였고, 투고규정에 명시된 논문의 골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영문초록의 형태도 한 문단 초록, 여러 문단 형태의 초록 등 다양하였고 참고문헌 표기도 체제상의 오류가 많았다. 판권부분에서도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 학술지는 투고규정을 많이 보완하고 저자들에게 투고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별도로 주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사학

자체평가항목에서는 심사 방법이나 심사 기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학회 규모가 작아 편집업무에 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였다. 의사학에 실린 논문들은 자연과학의 연구논문이라기 보다는 역사학 중 의학분야라는 특성상 인문과학 논문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참고문헌이 각주 형식으로 처리되었으며 [내용 각주]와 섞여서 해당 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 있었다. 내용각주는 하단에 처리하는 것도 좋겠으나 순수한 참고문헌의 경우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KoMCI 작업 등 인용지수의 산출에 좋을 것으로 지적되었다. 투고규정이 간략하여 미비한 점이 많고 참고문헌의 기술 양식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지키지 않는 저자가 많았다. 투고규정을 보완하고 심사과정에서 참고문헌의 기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대한응급의학회지

자체평가에서는 학회의 연혁이 짧고 규모가 작아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 외 대부분의 편집업무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실문평가에서는 잡지에 대한 “Scope and coverage”와 간기에 관한 문구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투고 규정, 잡지의 체계는 훌륭하였다. 논문내용, 영문초록, 참고문헌의 기술 방법에서 미숙한 점과 틀린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통일성이 부족하다. 표를 한글로 만든 것도 국제화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며, 표 역시 한글 사용과 영어사용에 일관성이 없다. 투고규정상 **running title**은 7단어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 또는 자세한 심사 업무편람을 만들어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한이식학회지

학회의 규모 때문으로 생각되는 문제로 별도 사무실 없이 편집업무가 수행되면서 모든 행정 처리 기록이 컴퓨터로 기록되지 못하여 편집 업무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투고 규정을 포함하여 학술지의 체계는 양호하다. 실문평가에서 심사의 일관성 결여로 논문, 초록, 참고문헌 등에 어색한 부분이 많고 틀린 부분도 많다. 특히 본문 내에 영문의 기술 방법, 약품의 표기 방법, 표에서 약어의 각주달기 등이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고규정 안에도 참고문헌 부분에 오류가 있고 **running title**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위원의 교육이나 업무편람을 이용하여 심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학교육

‘한국의학교육’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정규학술지로서 14년의 지령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관한 연구업적을 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자체 논문 인용률이 우리나라 학술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면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에서 잦은 편집인의 교체, 편집 실무적인 면에서 일관성과 정확성의 결여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투고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하여 저자로 하여금 원고 작성에 혼동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투고규정에 오자, 띄어쓰기의 오류가 보이고 미비한 점(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요소, 논문 작성의 기본요령, 도량형 등)이 있다. 저자 이름의 표기, 초록의 형태(정형초록 혹은 비정형초록), 본문의 체제 등에 일관성이 없고 참고문헌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도 많이 눈에 띈다. 표의 사용에 있어 오자가 보이고, 수직선을 사용한 것도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투고규정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며, 편집체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지령 15년의 계간지로 대한체질인류학회의 정규학술지다. 편집인의 교체가 비교적 자주 있는 것 외에 자체 평가항목은 중간이상으로 평가되었다. 투고규정에 오자가 있고 논문의 종류 별 논문 구성요소, 취급논문의 범위, 도량형, 원고 제출 전 점검사항,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 등의 미비가 발견된다. 저자 이름과 소속사항의 표기에 차이가 보인다. 초록 내 결과에 번호를 붙여 기술한 논문과 문단을 나눈 것이 많다. 본문의 체제에 일관성이 없고, 참고문헌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도 많이 눈에 띈다. 표의 사용에 있어 약어의 설명 각주가 없는 것이 보이고, 수직선을 사용한 것도 발견된다.

투고규정의 보완이 대폭 요구되며, 편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지령 40년의 격월로 발행되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정규학술지다. 편집인의 교체가 비교적 자주 있는 것 외에 자체평가항목은 중상위의 점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는 학술지로 평가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발견된다. 투고규정에 오자가 있으며 논문작성의 기본요령,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 표, 전자 원고에 대한 사항 등의 미비점이 눈에 띈다. 저자 이름과 소속사항의 표기가 논문 간에 차이가 보인다. 초록 내 결과에 번호를 붙여 기술한 논문과 문단을 나눈 것이 있으며, 영문 200단어를 초과하는 논문이 많다. 본문 체제의 일관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참고문헌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도 있다. 사진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고규정 특히 초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학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차 의학학술지 평가 점수

(2002. 9. 25(수) 오후 5시, 서울대병원내 임상의학연구소 제1회의실)

항목	세부항목	구강악안면 방사선	소화관운동	순천향	응급의학	의사학	이식	체질인류	치과보철	한국의학 교육
자 체 평 가	1-1	3	3	5	2	5	3	2	3	2
	1-2	4	4	4	4	4	4	4	4	2
	1-3	2	2	3	2	1	0	3	4	1
	1-4	5	5	5	5	5	3	5	5	3
	1-5	4	5	4	4	5	3	4	3	2
	1-6	2	5	1	5	5	2	3	4	2
	1-7	4	2	0	4	4	0	3	5	0
	1-8	3	3	2	2	2	1	3	5	5
	1-9	5	5	5	5	5	5	5	5	5
	1-10	5	5	3	5	3	5	2	5	5
	1-11	3	2	0	4	0	2	2	4	2
	1-12	3	2	2	2	3	2	2	3	2
	1-13	5	2	0	1	1	0	3	1	1
소계	48	45	34	45	43	30	41	51	32	
실 물 평 가	2-1	3	4.3	3	4.3	4.3	5	3.6	3	3
	2-2	4.3	5	5	3.3	2.6	4	2	2	2
	2-3	5	1.6	3.6	3.3	2.3	5	2	3	2
	2-4	3.6	3.6	3.3	4.6	2	4.6	2	3	3
	2-5	3.3	1	1.6	4	1	5	0.3	2	3
	2-6	5	2.3	2.3	2.6	1.3	2.3	1	1	1
	2-7	5	4	1	2.6	2	3.3	1.3	1	1
	2-8	5	4.3	0.6	3	3.6	4.3	1.6	0	0
	2-9	2	1.3	1.3	3	2.6	2.3	2.3	1	1
	2-10	2.6	2.6	3.3	4.6	3.3	4	2.6	3	2
	2-11	3	2.6	5	4	na	4.6	3.3	2.6	na
	2-12	4.3	4	4.3	4	5	4.6	3.3	3.3	4
	2-13	5	4	4	4.6	4.6	5	3	4.3	4
소계	51.1	40.6	38.3	47.9	34.6	54	28.3	29.2	26	
협 의 회 조 사 항 목	3-1	0	2	0	4	2	4	2	1	2
	3-2	2	1	1	1	1	1	2	2	5
	3-3	0	0	0	0	0	0	0	0	0
	3-4	0	0	0	0	3	0	0	0	0
	3-5	0	0	0	0	0	2	0	0	0
	3-6	0	0	0	0	0	1	0	0	0
	소계	2	3	1	5	6	8	4	3	7
통합평점	3.16	2.76	2.29	3.06	2.69	2.87	2.29	2.6	2.09	

(na : data not available)

© 세부항목 내용은 www.kamje.or.kr로 들어와서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을 클릭하면 볼수 있다.



KoreaMed(www.koreamed.org) 활용하기

학술지 website에 KoreaMed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검색기능 제공하기 (예, JKMS의 경우)

학회에서 학술지 website를 구축할 때, 논문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KoreaMed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Journal of Medical Science (JKMS)의 경우를 예를 들어 소개한다.

오른쪽 그림은 JKMS website의 학술지 논문검색 화면이다. 검색박스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KoreaMed로 연결되어 KoreaMed에서 JKMS에 실린 논문을 검색한 결과를 보여준다.

KoreaMed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논문검색 기능을 제공하려면, JKMS Search 화면의 source code를 그대로 사용하되, 학술지명만 해당 학술지명으로 바꾸면 된다. 따라서 학술지 웹을 구축하려는 학회는 KoreaMed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논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값비싼 검색

기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관련문의는 의편협 KoreaMed 담당자에게 (전화: 794-2474 내선 335).



2002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보관리위원회 워킹 안내

◆ 목적

각 학술지의 실무자가 영문초록 및 서지사항을 KoreaMed XML 양식에 맞추어 파일을 KoreaMed에 보낼 수 있어야 함.

◆구체 목표

1. XML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2. 참석자는 XML 과 HTML 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KoreaMed XML의 꼬리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담당 학회지의 한 호를 KoreaMed XML 자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5. XML에서 특수 문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 만든 자료를 KoreaMed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시 간 : 2003년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6시
- 장 소 : 한양의대 의학관 2층 회의실 및 5층 정보센터
- 진 행 : 참석자를 두 조로 나누어서 실습실에서 강의 및 실습 동시 진행
- 참석자 : 각 회원 단체에서 워킹 후 실무 작업을 직접할 수 있는 전담 학술지 실무자
예) copy editor, 편집 보조인, 학회 전담 직원 등
- 준비물 : 최근 한호의 영문 서지사항 및 영문초록·글 또는 워드 파일 및 한 호의 종이 잡지
- 일 정
(구체적인 시간 계획은 공문으로 각 회원단체에 안내할 예정)
-제 1 부 XML 작성 (강의 및 실습)
-제 2 부 XML 파일 점검 및 특수 문자 처리(실습)
-제 3 부 파일 발송 및 평가



제 13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안내

1) 행사명 — 제 13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시간 : 2003년 2월 21일 (금) 오후 4시, 장소 : 서울대병원 내 임상의학연구소 2층 회의실)

2) 평가대상 : 평점 2.5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술지,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회원단체 학술지 등

3) 평가내용 : 자체평가 13개 항목, 실물평가 13개 항목, 협의회 조사 6개 항목

4) 평가위원 : 협의회 평가위원 9명 + 자체평가위원 (학회에서 직접 추천한 1명)

5) 제출자료 : 학술지(1999년 첫 호 1부와 2002년 마지막 발행호 5부), 자체평가항목, 평가신청서

6) 신청기한 및 접수 : 2003년 2월 3일 (월)까지

대한학회 내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40-721 용산구 이촌1동 302-75)

전화 : 798-3807 팩스 : 794-3148 e-mail : hbear@kams.or.kr